

“Take only pictures!”... 등산로 이용 에티켓과 주의사항

한국인의 산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등산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한국의 산은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입고 온 옷 색깔들이 어울려 마치 가을 산을 보듯 화려한 색깔로 치장된다.

이곳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남가주 지역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1시간 이내면 잘 닦인 등산로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이곳 저곳에 등산로가 많다. 그리고 어떤 등산로를 통해 산을 오르든, 한국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리 힘들지 않다. 주말의 경우 유명 등산로는 조금 과장하면 탐방객의 절대 다수가 한국 사람이라 할 만큼 한국 사람들의 발길로 뒤덮이기도 한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한국의 어느 산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하지만 남가주의 산은 한국의 산에 비해 주의해야 할 것도, 등산하면서 지켜야 할 것도 많다. ‘에이,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눈총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good4fun.com이 미국 공원이나 등산로 이용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각 공원이나 등산로에 따라 그곳에서만 적용되는 규칙들도 있으니 공원 이용 전에 미리 파악해 이용 시 꼭 지키도록 해야 한다.



■ 일반적인 주의사항

- 오픈 된 등산로만 이용하고 사유지가 있는 경우 들어가지 않는다. Ride on Open Trails Only.

-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Do not feed wild animals.

- 공원에서는 어떤 것도 가져오지 않고, 어떤 것도 두고 오지 않는다. Take only pictures, leave only foot prints.

- 등산로에서의 우선 순위를 지킨다. 대부분의 경우 1. 말 2. 등산객 3.산악자전거 순서이다. 즉 산악자전거를 타다 등산객과 좁은 등산로에서 마주쳤을 경우에는 산악자전거를 탄 사람이 등산객에게 우선 지나가도록 길을 양보해야 한다. 말을 타고 있는 경우 말을 멈추고 지나가도 좋은지 상대방에게 물어본다. 또 호수, 시내 또는 샘에서 200 피트 이내에 말을 묶어 두지 않는다.

- 허용된 등산로만 이용한다. Use open trails only.

- 항상 다른 이용자에게 길을 양보한다. 휴식을 취할 때는 등산로 가장자리를 이용한다. Always yield to other trail users.

- 진드기(tick)를 주의한다. 미국의 산에는 진드기가 많다. 특히 우기(겨울철)에는 더 많이 있다. 등산로 변의 나무나 풀에 붙어 있다가 동물이나 사람이 스치고 지나가면 달라 붙는다. 특히 사슴진드기(왼쪽 사진)는 라임병(Lyme Disease)의 매개체이다. 라임병에 걸리면 열, 두통, 큰 과녁모양의 피부발진이 생기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등산 후에는 등산복을 살균 세탁하고 귀가 즉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나무나 풀에 붙어 있다가 동물이나 사람이 스치고 지나가면 달라 붙는다. 특히 사슴진드기(왼쪽 사진)는 라임병(Lyme Disease)의 매개체이다. 라임병에 걸리면 열, 두통, 큰 과녁모양의 피부발진이 생기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등산 후에는 등산복을 살균 세탁하고 귀가 즉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 산악자전거 탈 때 주의사항

- 규정속도(각 공원의 룰 참조)를 지킨다. 공원 관리인들이 가끔 레이더 건을 사용한다.

- 헬멧을 착용한다. 도로에서는(성인이면) 불법이 아니지만 많은 공원에서 룰을 적용한다. 물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한다.

- 앞에 가는 산악자전거, 등산객이나 말을 지나쳐 가려면, 우선 속도를 늦추고 앞에 가는 이에게 지나쳐 간다는 신호를 미리(등산객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피할 수 있게) 보낸다. “Biker coming! (바이커가 오고 있어요!)”, “On your left! (왼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등의 말로 앞에 가는 이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또 지나가면서 “Excuse me, thank you.”, “Have a nice one.” 등의 인사말을 잊지 않는다. 여러 명이 타는 경우는 “2 more coming.” 등의 말로 상황을 주지시킨다.

● 보이지 않는 등산로의 모퉁이를 돌 때는 주의하여 천천히 돌고 필요 시 벨이나 큰소리로 주의시킨다. “Rider!”

- 내리막에서 내려오는 자전거가 오르막을 오르는 자전거에게 양보한다. 오르막을 오를 때 내려오는 자전거에 주의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빠른 속도로 내려올 때, 가끔 못보는 경우가 있음) 멀리서 내려오는 자전거 탄 사람에게 본인이 있음을 주의시킨다. “Rider up!”

■ 야생동물과 관련한 유의사항

미국의 산에는 한국의 산에 비해 야생동물이 많다. 그 가운데에는 방울뱀, 마운틴 라이언 등 등산객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산에 오를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 이용객이 적은 공원이나 등산로는 여러 명이 같이 등산하는 것이 좋다.

- 꿈은 음식냄새를 좇아 온다. 가능한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으로 준비하고 음식은 텐트가 아닌 지정된 곳에 보관한다. (동물이 많이 나오는 공원의 캠프장에는 보통 음식보관함이 있다.)

-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피하려 한다. 주로 갑자기 만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적한 곳을 지날 때에는 스틱 등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질러 동물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다.

-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동물을 만나면 어미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동물이 있는 곳을 피해 가거나 동물이 스스로 자리를 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부에나팍 / 플러튼 / 라하브라 / 애나하임

40년 경력의 주인이 직접 수리하는

한미 자동차 바디/수리

Hanmi Auto Enterprise Collision & Repair



모든 보험회사 취급



저렴한 가격 / 정확한 수리

- 무료 방문 견적
- 자동차 수리시 Pick up & Delivery
- Towing & Rent Car 알선
- 보험 수리 전문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FREE ESTIMATE



24시간 Cell 714.851.7556 4355 Artesia Ave. #D, Fullerton, CA 92833
 향시대기 714.680.9273 Dale + Artesia 플러튼 공항 뒤쪽(할주로)